

開闢 - 1921. 05. 01.

## 東洋道學의 體系 如何(下之一)

姜春山

折衷派-鷗冠子-中代哲學-淮南子-董子-揚子-東晉  
(神仙論)-葛洪-張融-近世哲學(北宋)-周子-邵子-張子

戊, 折衷派…………… (孔老의 中間)

鷗冠子 傳并書)

鷗冠은 隱君子라. 鷗鳥의 羽를 取하여 冠을 制함으로 時人이 號하여 鷗冠子라 名하니 楚人이라. 그 年代는 未詳하나 大略莊孟二子에 稍先하였슴은 諸種證據에 依하여 頗明하도다. 鷗冠子の 學은 古來로 稱하여 雜駁의 書라 하나니 其 說이 老子에 近함과 同時에 儒家와 同한 者도 有하며 或은 法家の言도 兵家の言도 有하여 一見에 實로 雜駁不一하여 骨董飯과 如하나 그 主義의 要點은 卽 經世에 在한바 經世의 法은 儒와 老에 取하고 그 結果로써 法과 兵에 論及할 畚이다. 그럼으로 一言으로 盡하며 鷗冠子는 折衷派이다.

哲學 (宇宙論)

天地生成의 淵源을 究함에 먼저 萬殊歸一인 道가 有하니 是로부터 氣가 生하고 氣로 由하여 於是乎差別의 端이 有하니 此를 意라 한다. 詳아서 宇宙間에 彌滿한 萬事-雜多하나 畢竟은 一되는 道에 不外하니라. 鷗冠子-其狀을 述하여 曰『莫不發於氣 通於道 約於事 正於時 離於名 成於法者也』라 하였다. 故로一의 道를 舉하면 天地도 亦隨來하나니 曰『一之法立 而萬物者 來屬』이라하니 以上은 左의 二要에 約할 者-라.

(一)萬物은 一貫할 事 (二)萬物은 其 所를 得할 事 聖人이 天下를 治함은 亦此에 則하였나니 萬物이 其 所를 得함은 自然의 趨勢로써 天命에 在한바니라. 聖人도 百姓으로하하여곰 各各其所를 得게하고저함은 又自然에 法치아 님이 不可하도다. 故로 曰『天文也 地理也 月刑也 日德也 四時檢也 度數節也 陰陽氣也 五行業也 五政道也 五音調也 五聲故也 五味事也 賞罰約也 此皆有驗 其所以然者 隨而不見其後 迎而不見其道』라 하니 天에 日月이 有함 如히 賞罰을 行하고 四時가 有함과 如히 人民을 檢하고 五政이 有함과 如히 道를

行하는도다 .

中代

淮南子 (漢時代哲學)

淮南子の 姓은 劉요. 名은 安이라. 父는 淮南厲王長の 子니 長은 漢高祖의 子라. 淮南의 爲人이 讀書를 好하고 馳馬弓戈를 不喜하더니 時時厲王의 厄을 怨하여 叛逆을 謀하는 意狀이 具備하였더니 天子-斧鐵로써 其 罪를 問하매 自殺하니라. 其 著한바는 天下方士 等を 會集하여 討論編纂한 淮南全書가 有하니라.

學說一般

淮南子は 雜而不純하여 從前傳來하던 一切學說을 取攝치 아님이 無하니 老를 不黜하며 孔에 不偏하며 莊을 容하고 韓을 取하니 天人感應이 有하며 非思論이 有하여 實로 圓見이라. 故로 曰『觀堯之道 乃知天下輕也 觀禹之志 乃知天下之細也 原壺子之論乃知死生之齊也 見子求之行 乃知變化之同也』의 言으로써 能히 그 雜駁의 思想을 窺하겠도다. 儒敎는 子思以後에 性으로써 敎學의 中心을 삼고 老派則不然하여 虛無를 說하고 絶對를 說한 事-有하나 아즉 人性의 如何로 그 敎學의 中心을 說한 事-無하니라. 今淮南子全體의 傾向은 彼-絶對를 論하고 道를 論함에 依하여 見하면 老派임은 明白함과 如하도다.

그의 哲學

一, 性은 道에 達하는 所以 淮南子は 道로써 一切萬物을 結한바의 基礎라 하엿스니曰『道有經紀條貫 得一之道 連千枝萬葉』이라하고 又性으로써 一切行動의 標準이라 하니라. 其 言에 曰『凡乘舟而惑者 不知東西 乃見斗極則寤矣 夫性, 亦人之斗極也 以有自見也 則不失物之情 無以自見 則動而惑營』이라하다. 又人性을 善하다 主張함과 同時에 慾을 全혀 排斥코져 아니 하엿다. 一定의 慾은 人性에 固有한바를 論한바 다만 그 自然과 不自然의 別이 有하다. 自然이라 함은 必用이며 不自然이라함은 貪慾이니 即『適性情則慾不過節』이라 하엿다. 그리고 此性善의 根本思想으로부터 無爲의 善으로써 有爲의 不善이 된다 하엿나니 曰『所謂爲善者 靜而無爲也 所謂爲不善者 躁而多欲』이라하다.

二, 仁義는 僞니라. 人性은 善하니 其 性の 自然에 從하여 行動하면 惡할 事-都無하니라. 말미어 太古純樸의 時에는 人氣가 天과 同하니 此時에 當하얀 所謂慶賀의 利와 刑罰의 威가 無하며 禮義廉恥를 不設하고 又是 毀譽褒貶이 世에 不立하며 相侵欺하고 相暴虐하는 事-업시 渾溟의 中에 在함과 如하더니 衰世에 及하여 人衆財寡에 力勞養不足이라. 於是에 忿爭이 生한 結果

로 仁을 貴라 하며 詐譎를 設하고 機械巧故의 心を 壞하야 性を 失하니 於是에 義를 貴라 하며 男女-群居雜處하야 別이 無함으로 於是에 禮를 貴라 하며 禮만 有하고 同하는 事-無하면 卽 不和할지니 於是에 樂을 貴라 하였다. 故로 仁義禮樂으로써 차라리 敗를 救할지언정 統治의 至는 아니라. 仁은 爭을 救하는 바요. 義는 失을 救하는 바요. 禮는 淫을 救하는 바요. 樂은 憂를 救하는 바니 卽 人爲에서 出한 者라. 換言하면 僞-니 仁義를 立하고 禮樂을 修하면 卽 德이 一遷하야 僞가 되는 도다.

#### 結論

以上論한바에 由하야 見하면 性は 吾人行動云爲의 指針으로써 그 虛靜할 時는 卽 吾人の 道德이 되어 善도 此에 在하고 明도 此에 在하다. 故로 如何한 人이라도 性이 虛한 卽 道-此에 舍치 아님이 無하다 한다. 然이나 修務篇에서는 『性엔 善이 有함과 共히 不善이 有한바를 明言』하였스니 此는 卽 吾人は 學術로써 我性を 研磨치 안하면 不可한바를 唱導하니라. 然則 淮南子는 老子를 引用함이 多하다. 謂치 아니치 못하겠도다.

#### 董子 (傳并書)

董子の 性は 董이요. 名은 仲舒니 漢武帝時에 仲舒-天人三策을 上하야 膠西相이 되었더니 後에 公孫弘에게 嫉한 배되어 桂巖山에 隱하여 桂巖子라. 自稱하니라.

#### 哲學

天, 董子の 論은 哲學으로는 淺薄하다. 그 第一義는 儒敎와 如히 亦徹頭徹尾히 天이라. 董子の 言에 或은 天이라 하며 或은 天地라 하나 畢竟은 同物이니 蒼蒼焉하야 大한 者-卽 是니라. 獨其形骸만 大할뿐만 아니라 卽 天은 無量의 德으로써 一切萬物의 源이며 人物生成의 本이니 吾人の 生系를 踪蹤하면 卽 父母를 經하야 祖父母에 至하고 祖父母를 經하야 曾祖父母에 到할지니 此로부터 一次一階式上을 向하야 溯究할 時는 畢竟此를 天에 本할 外에 他道가 無하니 故로 天은 人の 曾祖父母라. 如斯히 天으로써 絶對의 偉大한 者라 함으로 左의 結果를 生함.

(一)天은 人の 父니 尊敬치 아님이 不可하며 (二)天은 人の 父니 故로 天人相感치 아닐 理-無하며 (三)天은 人の 父니 故로 天人이 相數치 아니치 못할지며 (四)天은 人の 尊敬할바인 故로 此에 則치 아님이 不可하니라.

更言하면

(一)人은 天의 子라. 故로 身體情性は 모다 天과 類하니 其 意를 述하야 曰『人身의 小節三百六十六이 有하야 一年의 日數에 相當하고 大節十二分이 有하야 一年의 月數에 相當하고 內에 五臟이 有함은 五行의 數에 相當하며

外에 四肢가 有함은 四時의 數에 相當하며 乍視乍瞑함은 晝夜에 相當하며 乍剛乍柔는 冬夏에 相當하며 乍哀乍樂은 陰陽에 相當하며 心慮計算은 度數에 相當하며 品行倫理는 天地에 相當하다』 하였고 又情性이 天地와 一貫한 旨를 說하야 曰『人이 生하야 化를 天地에 取하니 卽 喜는 春, 樂은 夏, 怒는 秋, 哀는 冬에서 取하였다. 말미어 天이 四時를 移易치 아니함과 如히 人이 亦四情을 其 宜에 得지못하다』 하엿도다.

(二)天人感應의 說은 古代로부터 流來하니라. 尙書에『天으로 能動的 精靈의이며 又人은 禍福司配라』 하엿스니 이제 仲舒의 哲學價値如何는 暫時此를 措하고 그 根本思想으로부터 天人感應이 必有함에 至한바 人이 天과 如함은 前項에서 明하니라. 그런데 人에게 陰陽이 有함과 如히 天도 陰陽이 有하며 陰氣와 陰氣-相應하고 陽氣와 陽氣-相應하니라.

性, 性이라 함은 人의 生한 本體를 指한 語니 抽象的이라. 善惡으로써 名키 不可하다. 譬컨대 繭과 如하야 繭은 絲가 아니라 아즉 絲-아닌 時는 卽 繭으로써 職工의 巧拙을 잘아 或은 良絲를 得하며 或은 不良絲를 得한다. 그럼으로 人의 性도 厥初는 無善無惡의 狀態로 陶鑄한 後에야 或은 善하며 或은 不善하니 生한 本體대로 放任하면 卽 無善無惡하니라.

#### 結論

董子は 天을 象한 者며 性則無善無惡의 論者-니 皆孔子의 意를 得하였다云할지로다.

#### 場子 叙論(傳並書)

場子의 名은 雄이요. 字는 子雲이니 邪成都人이라. 少하야 學을 好함이므로써 博覽強記하야 自經치 안흔바-無하니라. 그 爲人이 口訥하야 劇談키 不能하며 貧賤에 安하고 富貴를 不干하니라. 王莽이 漢祚를 奪하매 雄이 此에 大夫가 되어 劇秦美談을 著하야 王莽의 德을 頌하니 後世에서 此로써 醜하다 한다. 七十一歲에 沒하니라. 吾人이 揚雄의 哲學을 窺할만한 者는 오즉『太玄經法言』이 有할뿐이다.

#### 學說

董仲舒의 時는 武帝-專히 儒敎를 尙하던 時이라. 故로 仲舒의 哲學은 儒敎에 偏하고 其後에 儒敎는 漸漸成하야 老莊을 壓倒하는 勢一有하였더니 後에 儒老을 調和코자한 者는 卽 揚子가 其人에 相當하도다. 然하나 揚子의 論한바 太玄으로써 모면 儒老를 調和하였다. 云함보다 차라리 易哲學과 老派를 調和하였다 云함이 可하도다.

#### 哲學

揚子は 現象界의 本體와 現象界의 進程과를 闡明하야 現象界의 進程은 是

-即玄의 作用이며 玄은 宇宙의 本體라 하였다. 此는 全히 老派思想으로 來한 者라. 然이나 現象界의 活動進程을 摸捉함은 是-實로 易哲學의 本能이로다. 更言하면 이제 揚子의 所謂玄은 自動的 萬能的의 本體로써 現 界를 司配하는 者니 此則老子道の 觀念으로써 此를 現象界의 法則觀念과 結合케 함은 揚子로써 其人이라 할지로다. 玄의 宇宙를 開發함에 足한바의 原動力됨을 述하야 曰『假哉天地, 啗亟啓化罔裕於玄』 玄의 精靈의됨을 述하야 曰『陽知陽而不知陰 陰知陰而不知陽 知陽知陰 知止知行 知晦知明 不惟其玄乎』 玄의 一切를 司配한 바를 述하야 曰『玄者, 以衡量者也 高者, 下之 卑者, 舉之 饒者, 取之 罄者, 與之 明者 定之 疑者, 提之』 玄의 至處住를 論하야曰『近玄者, 玄亦近之 遠玄者, 玄亦遠之 譬若天蒼蒼然 在於東面西面南面北面仰而無不在焉及其挽則不見也天何去人人自去之』 然한데 天地人三者는 各三의 數에 由하야 司配되니 天에 在하야는 始, 中, 終이 是라 曰『天三據而乃成 故謂之始, 中, 終』 이라하고 一事一變이 皆此三階程을 經하야 成한 者라. 地에 在하야는 下, 中, 上이 是니 曰『地三據而形故 謂之下, 中, 上』 이라하고 一物도 此關係를 備치 아니한 者-無하니라. 人에 在하야는 『思, 禍, 福』 이니 人爲는 此三者로써 成하니라. 此三進動或은 三關係가 有하기 새문에 時間的으로 事變을 發現하고 空間的으로 形式을 形成하니 時間에 亘하야 人爲는 行하는 者니라. 말미어 此三되는 數의 起源을 尋究하면 其玄에 本치 아니치 못할지니 曰『玄有一道 一以三起 一以三生이라』 하였다.

現象進動 前節에 論함과 如히 現象은 『始中終』의 三階程을 經하야 進行하되 此에만 止함이 아니요. 此事가 更히 始하야 中과 終과를 經하야 他事를 成하되 此事-亦始가 되어 中과 終을 經하야 다시 他事를 成하니 此以上은 다 同一進程을 經由치 아님이 아니라. 然한데 事에 大小階級이 有하야 小階級の 事는 大階級一事의 始, 中, 或은 終에 該當한 者니라. 故로 小階級에 在하야도 始, 中, 終으로써 事가 相接하고 大階級에 對하야도 事가 相接하니 同一現象에 在하야 或은 此를 大로 見하고 或은 此를 小로 見할만하니라. 何者오 하면 大階의 一事는 小階의 三事-終을 告하는 時에 처음으로 一變을 見함에 不外함으로써라.

揚子가 現象의 進程에 關한 根本思想은 以上과 如하나 그의 八十一家를 論함은 頗히 具體的이다. 卽한바 『一玄都가 有하야 三方을 覆하고 各方에 三州式有하니 并하야 九州라. 各州에 三部가 有하니 并하야 二十七部라. 各部에 三家式有하니 并하야 八十一家』 라 하며 그리하야 一家三變이 有할 時는 一部의 變을 起하고 一部三變이 有할 時는 卽 一州의 變을 起하고 一州三變이 有할 時는 卽 一方의 變을 起한다. 一方에 一變이 有할 時는 一州에 三變

一部에 九變一家에 二十七變이 有하니 此-地理的으로 說明됨과 如하니라.

#### 修身論

法言의 中哲學에 取할만한 것은, 오즉 性이니 修身篇에 載在하다. 然한데 孟子는 性에 善의 分子뿐이라 하고 荀子는 此에 反하여 性에는 惡의 分子뿐이라 하고 孔子는 習相遠이라 하였다. 마는 揚子는 人의 性에는 善惡二分子가 有하여 其 善의 因子를 治長케 하면 善人이 되고 其 惡의 因子를 治하여 養成하면 惡人이 된다 하니라.

#### 結論

揚子는 卽 現象界의 思想에는 味하나 實用에는 不適하니 宇宙의 進動은 決코 如斯히 簡單한 者-아니라. 詳言하면 單히 『始, 中, 終』 三뿐이라. 言하면 極히 抽象的 普遍的으로써 具體的에 應用하였스나 其 効를 不得하겠도다. 何如던지 揚子는 實로 漢代의 第一思想家라 云할만하도다.

#### 己, 法家

東晉=神仙論=葛洪

漢이 滅하고 魏가 滅한 後, 晉室의 初에는 清談이 流行하다가 그 中葉에 至하여는 胡奴-中原을 陸梁하여 神州의 正統은 江南一帶의 地에 逼在하니 當時人心은 厭世에 厭世를 累하여 虛無放達의 論은 이미 彼等을 慰籍함에 不足하고 究章世를 離하고 形을 脫하여 仙을 化코저함에 在하니 此는 人心의 深底에 橫한 神仙의 念을 惹起한바로써 起함은 正히 東晉當初에 在하니 卽 『葛洪』 (仙祖)은 其 代表者니라.

老子的 道는 本社會經濟의 學이니 虛無恬淡은 其道의 形容에 不外하고 淮南子-三度養性說을 唱함으로부터 於是乎仙化의 端을 開하니라. 그런데 老子로써 仙敎祖라함은 仙敎의 眞理가 老子와 近似함으로써라』

葛洪의 思想은 是等兩者를 調和하였다. 換言하면 深山中에 隱하여 天地의 清氣를 呼吸하고 神을 養하며 丹을 煉하여써 不老不死의 藥을 作하고 神仙을 求하여 不老不死의 境에 入코저 함이라. 『抱朴二編』의 要는 此에 在하니 卽 仙藥調劑의 法을 論함과 同時에 他方으로는 服하여 達할만한 圓滿自在의 狀을 論하였다.(中略) 洪의 字는 稚川이니 丹陽句容의 人이라. 以爲하되 『富貴利達은 卽 太虛의 浮雲이라. 得함에 榮이 아니요. 失함에 不幸이 아니라. 且吾性이 懶惰하고 才-至短하니 名山에 入하여 性을 養하여 神仙의 跡을 逐함만 不如하다』 하고 於是乎深山에 登하여 此를 學術하였다 한다. 그의 神仙傳十卷 隱逸十卷 抱朴二編 其 他雜著一百餘卷이有하니所謂抱朴士라 함은 卽 抱朴의 義로써 時人이 稱한바라.

#### 三敎一致論 (張融)

張融의 字는 思光이니 宋文帝元嘉二十一年에 吳郡吳에서 生하다 年纔弱冠에 道士陸修靜이 白鷺의 羽와 鹿尾의 扇과를 融에게 遺하여 曰此-旣히 異物이니써 異人이 되리라 하다 融이 吏部尙書王僧虔에게 與한 書에 曰『融天地之逸民也 進不辨貴 退不知賤 兀然造化 忽如草永』이라 하다. 그리고 建式四年에 卒하니 年이 五十四라그 文章이 詭激하야 그 人格과 相似하니라. 그 著書는 卽 通源論이 有할뿐이다.

議論 融이 通源을 著하야 曰道와 佛과는 其 極의 寂然不動한 點에 至한즉 一이니 寂然不動한 點은 道와 佛을 根本으로써 二者-同感應한바니라. 다만 二者의 異한바는 時와 所에 依하야 그 發現한 形式이 異할 뿐이다. 例하면 『一鳥를 見하야 楚人은 鳬라 하고 越人은 乙이라함과如하니鳬라하며乙이라함은다-誤解가아니다但 見한方面이不同함으로써其說이異할뿐이다然則墨과佛과儒와道-相鬪함은此類와一般이라』 하엿다그의寂然不動으로써根本이라한語는頗히不明하니單히靜虛된다는意인지又是他의力學的實在의意인지此에對하야 周顒는力學的實在의觀念을提出하야써融의此語를反駁하야曰『道德經二編의要는單히形式的되는虛無에在하고佛敎의宗書되는般若의意는力學的(實在的)法性에在하니法性和虛無와는其靜됨은一이나形式的임과力學的임은大한差異가有하니足下의意는道와佛이虛無에對하야一된다함인가?抑亦法性이一된다함인가?此邊에頗히曖昧하다』 하엿도다

右와如함은實로三敎一致의主義라할지니라 (張融篇完)

近世哲學 (北宋哲學)

周子(傳并書)

周子의名은淳頤요字는茂叔이니濂溪는그書齋의號라先生이晩年에廬山の麓에家하니西清溪-蓮花峯下로發하야潔白玲瓏히下湓江에合流하거늘先生이濯纓而樂之하야因寓之하고濂溪로써號하다年五十七歲卽神宗熙寧六年六月七일에 卒하다

著한바太極圖, 太極圖說及遺文九篇이有하니太極圖와太極圖說是所謂宋儒理學의根源으로써甚히攻究한價値가有하니와周子가先人보다卓越한바는卽五性說을哲學的으로說明한點에在하다中古時代의哲學으로는董仲舒-曰『天에陰陽이有하니故로人에도邪正이無치아니하다』 하엿고揚子-曰『善惡이混하엿다』 하고白虎通에는『人이五性の常을含하엿다』 하고其他鄭玄 荀悅 邵子の說이其數-不一하다然이나此等說은皆天地와人을類似함을云할뿐이요그의必然的卽共通的과如함은此를明言치아니하엿다 또太極圖說의重要한바는古來道學家等은天地를無로부터生하엿다主張하고儒家는二氣五行의說을主張한바此二派의謂和한事-卽是니라

### 哲學 (宇宙并人性論)

周子は「一」의絶對를假定해야萬物の源이라하니此即無差別平等으로써名狀키不可한故로디더어形容해야無極而太極이라하니此는動靜의二能性을有해야動하얀陽을生하고靜하얀陰을生하며又動이終하면靜이되고靜이極하면動이되어一動一靜이互相根源이되나니라此渾沌한太極으로陰陽의別을生하니此를兩儀立이라云한다그러나此가아즉氣-아니라今陽이變動하고陰이此와合해야於是乎水·火·木·金·土를生하니此即「五氣」라此五氣가宇宙에順布해야四時가行하니라以上은아즉萬物이生하기前의一渾元狀態이라其中에서二個의原理를生하니『男性女性』이即是라此二原理는周子の語에從해야보면『無極의眞 二五의精』이妙合한者라此二原理가合感해야萬物을化生하니即某人某木の個個物이生하고個個의物이生해야變化-無極하니라

萬物이生할際에그의材料가된者는五氣即五行의氣라其中純秀美麗한바를得한者를人이라고粗雜한바를得한者를物이라하니人類는此로써最靈한바形이既成하면智覺의性이有하고且五行의性을備하니此五性이感動해야人世의萬事-成하니라

五行은一陰一陽에不外하되但方面이相異할뿐이요一太極에不外하되但動靜의方面이相異할뿐이니太極은本無極이라故로五性은即太極에本하니라

以上은周子の『宇宙論, 人性論』이라하니古來太極圖說에對하여誤解된者-三이有하니 (一)周子の太極으로써理라는說此는誤解라若理면何로써五行을生할가? 周子の思想은古來道士(仙敎)의系統으로부터來한者라其點으로보면彼-所謂萬物の生長者됨이無疑하나또彼の時間的으로天地의生成에對하여論한바로보면그太極은時空을超越하는實在-됨이明白하도다 (二)乾道成男坤道成女, 朱子以來로皆有形의男女라하엿스니若然하면『二氣交感化生萬物』이라云한者-解키不能하다이미有形의男女가生하면是는萬物이既生함이니二氣-交感이라云할必要-無하도다(三)陰陽으로써氣라한說, 朱子は太極圖說을解해야陰陽으로써『形而下即氣』라云하엿나니此는單獨朱子の說이오周子の說은아니라周子は五氣라云하엿스나陰陽을氣라云치아니하니라二氣交感의二氣는即男女의二氣니周子에在하야는陰陽은아즉氣에까지至치안흔說이分明하다以上으로써太極圖說은思想의何者됨을可히知할지로다

### 道德及政治論

(一)道德의根基는性善說에在하다, 道德의論은分하야二가有하니(1)道德의說明 吾人の性은仁義禮智의性이니그外界에接함에由하야善惡이生하고아즉物에接치안홀時를誠이라云하나니『誠은五常의本이며百行의源』이라五常, 百行이誠에由지안흐면邪라暗이라塞이라云하나니故로誠이無하면事-無하니라誠은無

爲이나其動에機하야 비릇오善惡이有하나니誠으로『愛함을曰仁, 義함을曰義, 理함을曰禮, 通함을曰智, 守함을曰信』이라한다 (ㄴ)修身의工夫 然하면聖人の域에達하는工夫는如何한가? 『曰思曰寡欲』이니洪範에『曰思曰睿 睿作聖』이라하였스니 思치안흐면微에通키不能하고睿치안흐면通치안함이無키不能하다通치안함이無함은微에通함으로부터生하고微에通함은思에서生하나니故로『思는聖功의本이며吉凶의機』니라

(二)政治論 政治는修身을基底로하니曰十室의邑에서提耳하 敎하여도且不及이온況天下의廣과兆民의衆이라故로純으로써心함이要라하노라仁義禮智의四端과動靜言貌視聽의不違을純이라謂하나니心이純하면賢才-登輔하고賢才-登輔하면即天下-治하나니라聖人은天에法하야政으로써萬民을養하고刑으로써此를肅케하나니民이盛하얀欲이動하고情이勝하면利害-相攻不止하며賊滅無倫하리니故로刑을得하야此를治하고同時에他方으로는禮樂을制하야萬民을化醇케하나니曰『古者聖王制禮法, 修敎化, 正三綱, 叙九疇, 百姓大化, 萬物咸順, 乃作樂, 宜人風之氣, 平天下之情』이라한다

#### 結論

宋哲學으로부터今日에至하기까지『東洋思想의淵源』되는者는此를太極圖說이라한다無極而太極의一言은思想을整理함에便함으로써多數人の信仰하는바니다

#### 邵子 (傳并書)

邵雍의字는堯夫니少時로부터慷慨大志가有하야初에百源에게學할새刻苦精神이能히人을絶倒하다後에吳에走하여楚에適하고齊魯을過하며梁晉에客하다가遺逸에舉하야將作薄主豎에게受驗하였다畢竟又潁川의團鍊推官이되엇다가疾을稱하야此를辭하고隱하야不起하다然하야神宗熙寧十年에卒하니哲宗元祐年中에諡을賜하야康節이라하다張橫渠, 程顥, 程頤의徒-皆學으로써相交하니그著書로는皇極經世書一十二篇이有하니라先生은宋의他哲學家와異하야孔子의徒로써自任하였스나決코老, 莊의徒를異視치아니하니라

#### 哲學 (宇宙論)

邵子是以爲호되自然界의法則과精神界의法則과는畢竟同一하야吾人이必然의됨을感하는바라하야此意味에서彼는『先天의唯心論』에及하니『先天學心法也圖皆從中起萬化萬事生於心也』라하고又曰『心爲太極』이라하였다又太極을解하야曰『太極不動性也 發則神 神則數 數則器 器則變 復歸於神』이라하니是로由하야觀하면邵子-一切의法則은即我心으로부터出한다함은歷歷히見할만하다換言하면宇宙의法則은即我心의法則으로써二者가同一한物됨을知하겠도다然한데一切의法則을約束하면即此가易의『太極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

卦』의說과同一에歸하도다此法則은絶對의價値를有함으로써宇宙가總此法則에由하야司配됨과如히各個物도此法則에由하야司配되지안함이無하니故曰『萬物各有太極，兩儀，四象，八卦之次，亦有古今之象』이라하엿나니此-倫理的으로宇宙萬物을觀破한者라更言하면宇宙萬物의眞底를洞察하야그宇宙의存立한所以의形格을觀破한者-로다

#### 陰陽論

陰陽은差別임과同時에無差別이니그無差別의方面으로見하는者-此를道라云하니陰陽의外에道-別有치안나니換言하면道는本體의方面으로見하는者요陰陽은發現의方面으로見하는者로다그發現치안흔方面에서陽은陰에게自含되엇나니邵子曰『無極之前，陰含陽也』라하고그發現의方面에서는陰과陽과를相別할外，他道가無함으로曰『有象之後陽分陰也』라하엿나니陰陽은卽道임으로써所謂無極之前이라함은此-無差別平等의際를意味함으로다

#### 現象論

(一)四數 陰陽은二의數에由하야司配되고思想은四의數에由하야司配되엇나니各現象은畢竟陰陽으로써陰陽現象과不二하도다盖易은二를根本하고揚雄關朗이三의數를提出한後에 邵子는四의數로써 根本이라하야四의數로써具體的으로事物의應用함에至한바其法에三이有하니 一은直線上에四의數로順次進動케한者니卽春夏秋冬의順次持續함과如함이는요 二는累進的이니會運世와如한者-是요 三은空間的으로進象에適用한者니天地萬物의生成과如함이는로다 (二)天地의過程 天地의過程이라함은卽廣漠한宇宙變遷의過程을測度한者로써時間에關係한者-니時間의單位를辰이라하야十二辰은日이되고三十日是月이되며十二月是一年이되나니一年은卽萬物一新의時니라쌀아서三十年을一世라하고十二世를一運이라하며三十運을一會라하고十二會를一元이라하니一元은卽天地一新의時니라天地-一變遷할時에萬物은無數의變化를成하는事-殆히一年의內에月이十二圓을回하고日이三百六十五會를中天에來함과一般이로다然이나天地의過程은此에不止하고終하얏다가又始하야循環無極하도다 (三)萬物의生成 萬物의生成에도亦是四의數를應用하니萬物을生成하는바는天에在하얀 日(太陽)月(太陰)星(少陽)辰(少陰)이는요地에在하얀水(太柔)火(太剛)土(少柔)石(少剛)이는니日月星辰의交를天體라하며水火土石의交를地體라한다 그리고天에는日月星辰에應하야雨風雷露가有하니卽天의物을變하는原動力이며地에는水火土石에應하야寒暑晝夜가有하니卽地의物을化하는原動力이라此等原動力에由하야變化되는進動은左와如하다

(가)暑는變物性 寒은變物情 晝는變物形 夜는變物體

(나)雨는物의走를化하고 風은物의飛를化하고 雷는物의草를化하고 露는物의

## 木을化함

情, 性, 形, 體의交를動植의感이라하고走, 飛, 草, 木의交를應이라하나니感과應이相合해야萬物을生成하나니라 그런데萬物의中에오즉人만暑, 寒, 晝, 夜에皆變되며쌀아서雨, 雷, 風, 露에化치아님이無하며走, 飛, 草, 木에應치아님이無하고其餘의物은皆其中의一部를受할뿐이다故로人의目은萬物의色에最善하고耳는萬物의聲에最善하고鼻는萬物의氣에最善하고口는萬物의味에最善함을得해야萬物의靈長되는바니唯人은天地萬物을備한者라云할만하도다(四)經世論 邵子是人世의萬事-總히四의數로行하는바를主張하니以爲하되善히天下를化하는者는道를盡함에止하고善히天下를敎하는者는德을盡함에在하고善히天下를勸하는者는功을盡함에在하고善히天下를率하는者는力을盡함에止할뿐이니道德功力으로써化하는者를皇이라謂하고道德功力으로써敎하는者를帝라謂하며道德功力으로써勸하는者를王이라謂하고道德功力으로써率하는者를侯라謂하며化敎勸率으로써德을삼는者를書라謂하고化敎勸率으로써勸하는者를詩라謂하고化敎勸率으로써力하는者를春秋라謂하니라易, 詩, 春秋, 書는聖人의經이니天이時를不差하면歲功을成하고人이聖經을不差하면君德을成하나니天에常-時가有함과共히人에常-經이有하다此를行하여야正할時는正하고此를行하여야邪할時는邪하나니邪正은人에由하고天에不由하도다

## 結論

邵子の刑象論이揚雄의現象論과그思考形式이同一하다故로揚雄을贊해야曰『揚雄作玄可見天地之心者也』라하엿다邵子哲學은後來의其人을不得하고다만朱子が其後에邵子の數學方面에對하여傳을得하니라

## 張子 (傳並書)

張子의名은載요字는橫渠니大梁人이라年十八에慨然히功名으로써自任하여范文正公에게謁한대公이一見하고그의遠器임을知하여因히中庸을勸讀케하니此를愛하엿스나足히여기지안코釋老의書도研究하여六經도求하니라年五十八에卒하니그著書는正蒙經學理窟語錄西錄東錄等이有하니라

## 本體論

張子의根本主義는太虛니太虛는即氣라蒼蒼然茫茫然함이氣아님이無하니故로太虛는實在인者-라然한데太虛는二方面으로見할만하니一은自働의方面이요一은本性의方面이라自働의方面으로見할時는內容的으로活動의性이有하니此를太和라謂한다又本體의方面으로見할時는其德은虛明하니라太虛가凝集할時는物이되나니故로萬物은太虛의變化한形容에不外하고本體는即太虛그것뿐이다 말미어萬物이散하면即本體의太虛에復歸하나니今茲太虛의何者임을詳記하랴면 (一)太虛는即氣로써眞으로存在한者라 是-先生의最熱心主張하는바니老子는有가無

로부터生하였다하나決코此理가無하다고辨明하니라 (二)太虛는卽萬物이니 萬物은太虛의凝集으로부터成한者라譬하면元素가一物을組成함과如하야決코萬物이太虛中에懸在한바-아니라若太虛와萬物을分하야二라하면佛氏의『山河大地로써見病』이라하는弊에入한다 (三)內容的으로有한理라함은卽陰陽屈伸相感의性이니此理를研究함은卽易이라故로易은本體論이아니요法則을論함에止할뿐이다然한데萬物은陰陽의原則에從하야生함으로써二物로相異치아니하니一物에亦陰陽左右가有하니라 (四)橫渠는鬼神을解하야二氣의良能이라하였나니曰『鬼神者二氣之良能也，聖者至聖，得太虛之謂，神者太虛，妙應之目，凡天地法象皆神化之糟粕爾』라하다 (五)天地도亦是一個의氣라地는純陰의中에凝集한者요天은浮陽의外에運旋하는者-니此-天地의常體라恒星은天에繫附하야天과共히運旋無窮하고日月五星은天에逆行하야地를包行하고地는氣中에在하야天에左旋하나地에係한辰象이天에隨하야稍稍遲遲하나니故로此는天地共動의說이니라 (六)此二氣로부터萬物은化成되니陰의性은凝集하고陽의性은發散한다風雨霜露-다그의結果-니一言으로써蔽하면太虛는自己의能力으로써先히陰陽兩者를作하고更히陰陽兩者로써萬物을生成하도다以上에由하야觀하면宇宙는全히太虛의凝集披散에不外하니張子의世界觀은一元的의이로다萬物은互相貫通치아님이無하니此點은「하밀도만」氏의『無意識界에서萬物의交通이有한事를信』함과如하다然이나張子의假定한太虛卽本體는決코「하밀도만」의無意識의實在와混同함이不可하니張子의本體는空間的으로在한者라故로一元的이라그立脚地는經驗的이나「하밀도만」의實在는超經驗的이니라

#### 倫理論 (附心理論)

性 張子는 一元的의世界觀을立하야그根本主義로써太虛라하고一切萬物은그客形에不外하다하였나니然하면人도亦太虛의凝集에不外하다太虛의性은虛明함으로人의性도亦虛明함이그本然이라한다오즉太虛凝集의際에淸濁의區別이有하니是로써人의氣質도亦相同치아니하리라 然함으로教育의要는此氣質을變化함에在하니氣質의別이有함은卽我-有한所以라氣質을變却할時는卽我が無하나니我が無함은卽天과一됨으로써-라

心 張子의心에關한見解는不明하니曰『合性與知覺有心之名』이라하고又曰『心統性情者也，太虛者心之寔也』라하고其心으로써知覺이有하고且力學的이된다함은明하나太虛를立한一元的의世界觀으로부터如何히心을見할가함은頗히明치못한바-라다만其人의『本無心因物爲心』의語로써見하면物의接觸知覺이卽心의名이有한所以-된다云함과如하다然하나그의論한바見聞으로써心이라云함이不可하니若見聞으로써心이라할時는天下의物을일일이見聞키不能할지니畢竟心을小케하는者라但心으로太虛에合할만할뿐이다心이既虛할時는卽公平하고公

平할時는是非-較然히現前하나니라

禮以上은倫理論의大略이라其語-繁하나其要是此範圍에不脫할지라然한데橫渠의禮에關한見解를言하면一切萬物の生成함은一定의秩序-有하니此即禮라故로禮는即道니道는太虛中에內容의으로含蓄된者-라由是觀之하면禮는人에서出한者-아니요即天에出한者니天에出한者-決코變함이不可하니라天에在하야天序天秩이요人에在하야尊卑長幼니此를守함은即禮를守하는마라然한데太虛는物の性이라말미어禮를守함은性을持하는所以며性을持함은即本에反하는所以라아즉性을成치못할時는禮로써此를持할지라

#### 結論

張子是一根本主義를立하야此로써宇宙一切의現象을解釋하고禮를演繹하야써修身의基礎를立하니其入學의初門은禮로써定하고終에性の虛明에復하야써天地의太虛와同一體되는事를期하니그思想이明白하야그組織의矛盾이比較的少하도다張子哲學에가장注意할만한것은『太虛即氣니氣의本性은虛而神하고且一切의法則을具備하였다』한事-是로다 …………… (張子篇完)